

## ‘언어오염’으로 상징된 이 시대의 陰晝 익명의 도시 배경으로 한 연작장편

— 「섬에서 섬으로」낸 작가 이유범씨

이 책 그 사람

문학적 표현의 주요 수단인 언어 자체가 소설의 중심주제로 부상한 예는 그간 글쓰기의 의미를 묻는

작업과 연관된 몇몇 작가의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작가 이유범씨(39)의 「섬에서 섬으로」(문학아카데미)는 언어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 시대의 부정적 단면들을 소설의 외형적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언어’와 ‘사회’ 혹은 ‘말’과 ‘현실’의 구조적 상관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 작품들과는 구별된다.

‘말에 대한 작은성찰’이라는 부제로 5편의 중·단편이 연작형식으로 묶여 있는 이 소설은 “언어의 사기와 언어의 독재와 언어의 무차별 폭력 등 견뎌낼 수가 없”는 ‘언어오염’이 집필 당시 작가가 기거했던 지하실방의 음습한 곰팡이 냄새로 비유되면서, 글을 쓰는 작가의 행위조차도 힘겹게 했었음을 암시하는 ‘작가의 말’로 시작된다.

작품의 공간은 익명의 한도시와 그 도시의 한복판을 흐르는 강, 강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섬과 그 섬과는 구별되는 몇개의 다른 섬, 그리고 도시와 섬을 항상 둘러싸고 있는 안개 등 마치 한강과 여의도를 연상시키는 매우 상징적 구도를 갖고 있다. 도시의 중심이 되는 섬은 사람들로부터 “진실된 말의 원천”으로 신성시되면서 도시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섬에서 허가된 말 이외의 말을 발설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 사회의 언어통제에 의문을 품은 신문사 기자와 전직 국어교사가 벌이는 ‘언어의 실체찾기’

과정이 펼쳐진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작품에 내재된 고도의 상징성이 불거져나와 심리적 부담감을 줄 것 같지만 막상 그 내용은 독자들에게도 익숙한 경험(예를 들어 사전에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한 기자회견, 취재기자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 등)을 상기시키는 사건들로 이뤄져 있어 섬짓한 느낌마저 든다. 이러한 정황설정과정에 대해 이유범씨는 “한 시대의 현실을 장치삼아 말의 여러 양태를 점검하고 가능한 한 말의 본모습을 밝혀내는 일, 그리하여 어느 특정 시대와 유사하게 반복될 수 있는 앞으로의 시대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애초의 욕심이었다”고 말한다.

소설가뿐만 아니라 평론가의 이름도 갖고 있는 그는 현재로서는 소설에만 전념할 생각이라고 하지만 작품 곳곳에서 읽어낼 수 있는 구성의 치밀함과 특히 ‘담화구조’에 대한 관심은 평론가적 기질의 반영이라는 것이 평단의 중론이다.

작품구상에서 탈고에 이르는 시간이 다른 작가들에 비해 길기 때문에 과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는 ‘진지하고 끈질긴 작가’로 불리우기도 한데, “선택된 주제를 끈기있게 밀어붙이면서 그 내포적 의미망을 최대한 확대시키는 주도면밀한 구성”은 과격하지 않은 ‘실험성’을 보여주면서 그의 소설의 독특함을 이룬다.

오랜 교직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학교얘기’를 쓰는 것이 그의 다음 계획인데, “소설가로서 아직 한가지 방향을 정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면서도 당분간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 정소연 기자

## 제대로 된 번역 위한 勞力의 과정 ‘엄마의 말뚝’ 영역과정 상세히 기록

— 「번역이란 무엇인가」펴낸 유영란씨

이 책 그 사람

출판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출판된 번역서는 전체 출판물 발행종수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서 출판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은 이러한 양적인 비율의 증가는 그러나 곧 질적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아, 아직도 국내 번역서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실정이다. “학위나 명성보다는 제대로 된 번역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앞섰습니다.”

‘번역학’이 뿌리내리기는 고사하고 반반한 번역이론이나 원칙에 대한 논의들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유영란씨(36)가 최근에 펴낸 「번역이란 무엇인가」(태학사)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 책은 박원서의 단편 「엄마의 말뚝 I」을 영역하여 여덟명의 미국인에게 읽고 그들의 제안과 지적을 바탕으로 수정, 교정한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영어로 씌어진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서울로의 유학, 어머니의 과도한 교육열, 마구잡이 독서에 몰입하여 주로 혼자서 놀기를 즐겼던 그의 유년체험이 작품 속의 화자와 유사하여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엄마의 말뚝」을 원본으로 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이밖에도 이 작품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한국적인 정조나 문화, 작가 특유의 섬세한 문체 때문에 번역에 욕심을 내게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작품을 읽어내려가면서 사전을 찾지 않고 번역문을 펴기하고 이를 다시 타자로 옮겨 기록한 것이 그의 번역작업의 1단계. 이후로, 편집경험과 문학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미국인에게 이를 보여 수정받고, 17개의

문항을 만들어 다시 7명의 미국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재수정을 받기까지 그의 번역과정은 3단계를 거친다. 그 과정에서 시제, 화법, 문장의 흐름, 표현 등에 대한 수정과 교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책은 그 과정을 실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각국의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 사회, 역사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번역이란 단순한 어휘의 옮김이 아니라 그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광범위한 문화체계를 소개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번역가에게는, 문화의 중개자로서의 소명의식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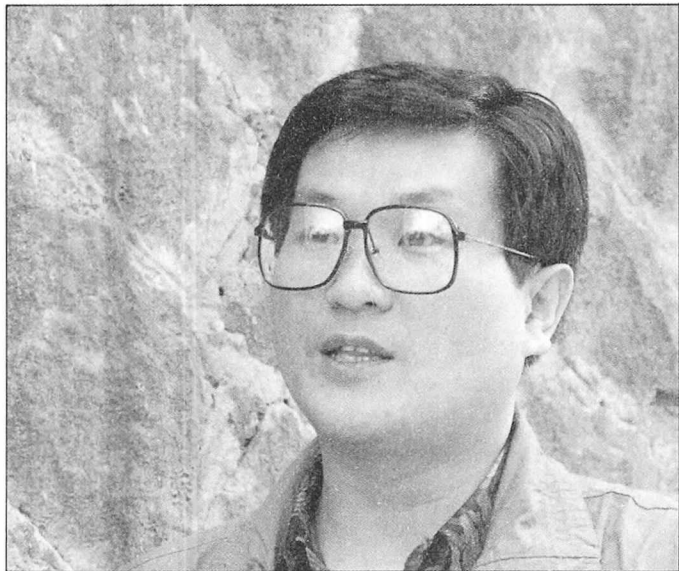
그는 우리나라 번역서들의 수준문제가 제기되는 요인으로, 번역가들의 치열한 직업의식의 부재와 번역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출판풍토를 지적한다.

한때 대학 강단에도 섰던 경험이 있는 그는, 언어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방식 등을 발견하고,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과 싸워나가야 하는 ‘번역의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고백한다.

’89년 귀국하여 지금까지 그는 「아리랑」과 「Korea times」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외국에 소개하는 글을 쓰는 한편, 외국 출판물의 우리말 번역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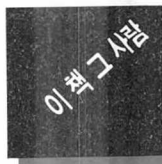
일을 시작하면 그곳에만 몰입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때문에 남편이나 두 딸에 미안함도 없지 않다고, 지금은 가족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하는 아내’ ‘일하는 엄마’의 모습은 그러나 부단한 ‘투쟁’의 산물이었다고 그는 귀땀한다.

— 박남정 기자



## 문화부 출입기자의 문화부장관론 문화정책변천사 등도 함께 다뤄

—「이어령 문화주의」펴낸 박기현씨



“엄격하게 따지자면 본격적인 문화정책비평서로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예술정책을

전담하는 문화부 발족 1년을 정리 평가한다는 점에서 작으나마 보람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문화공보부에서 갈려나온 문화부 초대장관에 취임해 까치전화 문화가족운동 등의 독특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어령장관의 문화관 등을 분석한 「이어령 문화주의」(삼인행)를 낸 박기현씨(36·국제신문 문화특집부)는 자신의 책을 이렇게 소개했다. 정책비평풍토가 정착되지 않은, 그래서 마땅한 비평서 하나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 그의 책은 반갑기만 하다.

기왕에 문화부 문턱을 들락거리는 일선기자의 입장에서 한번 부딪쳐 보았다는 박기현씨는 ‘밤을 도와’ 집필해야 하는 어려움과 취재대상의 까다로움으로 꽤나 애를 먹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정작 그를 고생시킨 것은 생소하기 짝이 없는 분야인 무용·연극 등의 정책을 분석하는 일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평론가들을 줄라 도움을 받기도 하고, 관련서적을 뒤적이면서 내실을 기하려 했다는 그는 특히 이어령장관의 문화관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강연녹음과 「축소지향의 일본인」 「신한국인」 등의 저서를 빠짐없이 읽어내려 갔다. 그가 이장관을 중시하는 이유는 두가지, 즉 문화부내에서의 그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점과 초대장관의 성향이 그 부서의 미래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렇게 써어진 이 책에서 저자인 박기현씨는 이장관의 문화주의가 과연 어디에서 분출되는

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등 문화부가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일련의 정책사업을 조망하고 있는데, 어렵게 성사된 이장관과의 대담도 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공을 들인 부분은 취재를 통해 느낀 바를 지적한 ‘문화발전을 위한 제언 12가지’이다. 일본만화의 유입문제, 직배영화 시비, 예산편성, 출판환경 개선 등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 그는 책 말미에 ‘기구성격으로 본 한국의 문화정책 변천사’와 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문화정책을 소개하기도 한다. “되도록이면 객관성을 잃지 않고자 했는데, 정책부분에서는 미진한 점도 없진 않을 겁니다. 다만 정책은 정책대로 마련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우리 현실에서 이 책이 그나마 하나의 이해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문화정책에 대해 좀더 많은 정보와 식견을 가진 필자가 나서서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기 바란다 그는 이미 원고상태로 자신의 글을 읽은 아내의 반응에서 일말의 가능성을 느껴, 10년 가깝게 출입했던 과학기술처의 정책을 평가하는 작업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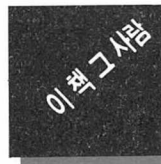
기자로서 기본적인 소신이 있다면, “모든 일에 애정을 갖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며, 어떤 경우에도 객관적이고자 한다”는 것. 이제껏 잡지사·사보·신문사로 ‘돌아다니며’ 원고지 메꾸기에 이골이 난 박기현씨는 요즘엔 동화와 시 쓰기에 신명이 나 있다.

—최태원 기자



## 한 신앙인의 방황과 神으로의 회귀 치솟는 ‘끼’ 감당못해 손댄 첫장편

—「바바리를 뒤집어 입은 남자」낸 이진수씨



길을 가다 스쳐가는 사람의 모습이 누군가를 쫓 빼달아 깜짝 놀라 멈춰 설 때가 있다. 조물주의 능력은

신묘하여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들어내지만 그때마다 묘약이 달라 그 누구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지만, 그도 더이상은 어찌지 못할 땐 간혹 빼다박은 듯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놓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직업인 배우의 경우, 특정한 인물을 빼닮는 것은 득일까 실일까. 닮은 사람이 후대에도 두고두고 거론될 역사적 인물이라면 그 배역은 따놓은 당상이어서 걱정은 없겠지만, 만약 악명으로 드높은 인물이라면 그건 참 악연일 것 같다.

“개인적으로 애정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고 박정희 대통령과 흡사한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던 연극배우 이진수씨(54)

올해로 무대생활 30년, 140여편의 출연작품에 직접 연출한 작품만도 30여편이 넘는다는 이 중견배우가 세인들에게 기억되는 건 아쉽게도 관록있는 연극인으로서보다 몇번 나가지 않은 TV의 예의 그 대통령역으로서다. 서너번의 ‘외도’가 소신의 30년 인생보다 더 위력적인 데서 TV의 영향력을 실감했다고 허허롭게 웃지만 그로 인해 인기인이 된 것이 그다지 싫지는 않은듯.

“연극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받는 예술이다보니 막이 내리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있다면 공연일정과 스태프의 얼굴이 나온 프로그램 한장이 고작. 이것이 내 연극인생의 흔적이다 싶어 소중한 간직해두지만 그것도 10년, 20년이 지나면 모퉁이가 낡고 빛이 바래요.”

이 허망함을 달랠 요량으로 그는 희곡번역에도 손댔는데(4권짜리 영, 미현대 희곡집을 묶는 등 적잖은 번역작품이 있다) 그것조차도 남의 뒤치닥꺼리 같아 ‘내 목소리를 담아보자’며 용기를 낸 것이 최근 펴낸 장편소설 「바바리를 뒤집어 입은 남자」(작가정신)이다.

신학대학을 나왔으나 목사는커녕 술과 담배에 절여 지내는 주인공 문희석이 ‘장미리’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점입가경의 사건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4개월 뒤 급작스런 장여인의 죽음소식을 접하면서 무엇에 홀린듯한 방향을 끝내고 결국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나이롱 집사’라는 아내의 비아냥에 인이 박힌 주인공이 부활절날 아침 자신의 바바리코트를 잘못 입었는지를 모른 채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소설의 끝은 일면 간증소설처럼 읽히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십일조문제, 개척교회, 부흥목사, 기도원의 실상 등을 꽤 낱낱이 드러내보임으로써 한국교회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기도 하다.

“한창 문학청년이던 시절, 「파우스트」 1장의 마지막 구절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악마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른 그에게 신은 왜 구원의 확약을 던져주었을까요?”

나이가 들자 신은 성직자처럼 곧바로 자신에게로 달려가는 이들보다 파우스트처럼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자기에게로 오는 이들을 더 사랑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 이같은 결론을 소설로 써보긴 했으나 독자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불러 일으킬지는 장담 못하겠다는 것이 「바바리를 뒤집어 입은 남자」의 ‘작가’ 이진수씨의 말이다.

—정혜옥 기자